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39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6,51-58)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6,51-58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바치는 기도문이나 익숙한 성경구절은 입에 배게 된다. 때때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입을 통해 귀에까지 울리곤 한다. 본당에서 사목할 때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달에 한 번 거동이 어려워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 성체를 영해 드렸다.

오전에 한 나절과 오후 한 나절 동안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인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봉성체 예식서에는 오늘의 말씀 중에서 54절부터 58절까지의 본문이 실려 있다. 성체를 영해 드릴 때마다 복음으로 읽어 드리다 보니, 나 스스로도 하루 동안 듣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분의 간절한 기도가 전해져 감사하고, 또 나의 마음과 입에 담아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함께 성체를 모셔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원천으로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이다. 가히 성체성사의 원전이라 할 수 있다. 천천히 반복해서 읽고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는 듯한 내적 감동을 받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6,54)는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취될 구원에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들처럼 성체성사제정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성체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사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최후의 만찬에서와 같은 의미를 반영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희생을 전제함이다. 따라서 당신의 몸을 먹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체성사 제정에 관한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사적 죽음이 긴밀히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만나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거부했다. “내가 준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6,51)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6,52)하며 서로 논쟁한다. 두말 할 것 없이 요한 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미사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맺음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시는 것과 같이, 성체를 모시는 사람도 당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생명은 다른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묵상할 일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6,58)

(수원교구 8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슈밧기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슈밧기

저자

팔레스티나에 살던 한 바리사이 유대인.

집필 연대

기원전 2세기 중엽.

집필 동기

토빗기와 같은 교훈 문학의 하나로 셀레우코스 왕조 지배 아래 유대인들의 신앙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동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율법을 잘 지키도록 일깨우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무네는 토빗기와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제국 시대. 이스라엘이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침공을 받아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슈밧이라는 여자가 이에 맞섭니다. 슈밧은 오로지 하느님을 신뢰하며 (9장: 슈밧의 기도) 지혜와 용기로 적장을 죽이고 동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냅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율법에 충실하기만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이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지사항

- * 9/20일 본당의날 행사(부제서품식)를 위해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 * 9월부터 시작하는 본당 성경공부(하느님 말씀)에 적극 참여합시다.

루카 9,23-26

다음 달 성경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행복과 고통이 함께 공존 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시련과 마주할 때 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저서 원정수
작곡 현정수

Chords: D, A, Bm, G, Em, A7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Chords: G, D, Em, F7, A7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 아 -

Chords: B, A, Bm, G, Em, A7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두에 게 -

Chords: G, B, Em, A7, D, D7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져 천국 으 로 -

Chords: G, D, Em, G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Chords: G, D,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